

**전일동향**

전일대비 11.60원 상승한 1,331.80원에 마감

16일 환율은 전일대비 11.60원 상승한 1,331.80원에 마감했다. 이날 환율은 NDF 1개월물 상승을 반영해 전 거래일 증가 대비 0.80원 상승한 1,321.00원으로 개장했다.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과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에 상승 출발한 환율은 1,320원대 후반까지 상승폭을 확대했다. 오후 장에서 환율은 역내 수출업체 네고 등 매도물량 유입에도 불구하고 강한 역외 매수세에 1,330원대를 돌파하며 1,331.80원에 최종 마감했다. 장중 변동 폭은 11.5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11.47원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(15:30)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321.00	1332.50	1321.00	1331.80	1329.00
엔화	905.48	912.06	904.02	904.33	-	
유로화	1445.82	1455.15	1444.69	1447.82	-	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-1.15	-5.95	-12.67
결제환율(수입)	-0.91	-5.01	-10.93	-21.43

\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
\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 확인

**금일 전망**

강달러 지속에 ... 1,330원대 중후반 등락 예상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2.45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331.80) 대비 6.65원 상승한 1,336.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 금일 환율은 간밤 연준 금리인하 기대 축소 등을 반영하여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. 시장은 연준이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76.9%에서 65.2%로 축소하였고 간밤 미국채 2년과 10년 수익률이 상승했다. 달러는 유로, 파운드, 엔화 등 주요 통화 대비 상승했고 특히 엔화 약세가 두드러졌다. 한편 올해 들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내증시가 간밤 뉴욕증시를 따라 하락할 경우 원화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. 또한 홍해에서 발생한 미국과 예멘 후티 반군의 무력충돌 등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불안이 지속되는 점도 위험회피 심리를 강화해 환율 상승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. 다만, 수출업체 네고물량 유입은 상단을 경직할 것으로 예상된다.

<b>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</b>	<b>1335.00 ~ 1345.00 원</b>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b>체크포인트</b>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1796.05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6.65원 ↑
	■ 美 다우지수 : 37361.12, -231.86p(-0.62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29.23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357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